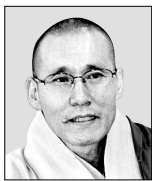


일주문



임성 스님 열반 27주기 다례제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6월 4일 경내에서 영암당 임성 스님 열반 27주기 추모다례제를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장학기금 전달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5월 28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장학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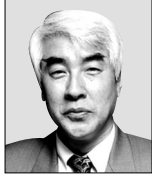
교양강좌 제47기 모집 남양주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은 6월 16일 봉선사 교양강좌 제47기를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매주 화요일 6개월간 진행된다. (070)8802-1953



제12회 현충제 범패와작법무보존회 회장 능화 스님은 6월 6일 인천 수봉공원 현충탑 광장에서 제12회 현충제를 진행했다. (032)884-8904



전통찾집 공(空) 개원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6월 9일 옥천에 불교공뉴스 전통찾집 공(空)을 개업했다. 찾집은 신문사 직원들이 운영하며 이익금은 장학사업에 쓰인다.



금강대, UNBC · TMC와 협정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6월 1일 캐나다 UNBC(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와 싱가포르 TMC Academy 대학과 학술협정을 체결했다.



초대전 '곡선미의 찬가' 불자 임무상 화백은 역삼동 유나이티드 갤러리에서 5월 28~6월 10일 초대전 '곡선미의 찬가-산, 소나무, 달 그리고 전을 열었다.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 어린이 도서 기증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은 어린이 도서 200여권을 기증했다.

김종규 회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 역사와 문화, 세계문화전집 등 어린이들의 감성을 높일 수 있는 책들을 기증했다.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도서공간 구름마루에 비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김종규 회장은 국립추천박물관, 울산 대곡박물관 등에도 책을 기증하며 도서 나눔 기부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또한 2009년에는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고구려 말갈춤 삼국시대 유물 10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다.

“대중 화합하는 총림으로 만들터”

동화사 신임주지 덕문 스님

“팔공총림은 간화선 중심사로 스님들의 수행도량입니다. 대중들이 함께 원융화합해 수행의 중심도량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내용을 담고 제27대 신임주지로 취임한 덕문 스님(사진)은 대중화합에 충실할 것을 밝혔다.

6월 3일 열린 교계기자 간담회에서 덕문 스님은 “가장 먼저 예경과 수행을 통해 중정 예하와 산중 원로 스님들을 모시는 수행가풍의 총림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동안의 내용에 대해 하심으로 서 여러 문중을 아우르고, 화합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덕문 스님은 취임법회도 정기법회에서의 신도들과의 인사로 대신했다. 동화사가 다시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힐링공간으로 개방할 것도 밝혔다.

스님은 “먼저 동화사 약사여래통일대불과 일대를 대구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할



화합, 제기치로 내걸어

사찰 개방 등 열린 공간으로 확대

계획”이라며 “향후 대구시와 협의해 동화사 입장료를 없애 누구나 자유롭게 동화사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문화재 보존 비용을 대구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대구시, 동구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님은 교구 운영에 대해서는 말사와 신도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는 기반에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덕문 스님은 “본사의 운영은 말사들의 살림이 좋아야 원활하다”며 “소속말사들을 둘러보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지역사회에도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지역 정서와 문중 정서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원융살림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본산했던 중무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불요불급한 불사를 줄여 재정을 강화하고 복지법인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간화선 중심사찰의 사격(寺格)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러 문중과 산중 어른들의 뜻을 아울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종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화엄사 승가대학 졸업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해 용화사·보문사·선본사 주지를 역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에 일본불교 연구방향 제시”

원영상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초대회장

“아직까지 한국에는 일본불교라는 연구영역이 생소합니다. 터부시되어 온 일본불교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학회 활동을 통해 한일 간의 연구 교류 등으로 양국 이해와 교류에 앞장서겠습니다.”

일본불교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가 창립됐다.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는 5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으로 원영상(사진) 원광대 교수를 선출했다.

이날 원영상 학회장은 “학회의 발전은 한국불교학계에 ‘일본불교’라는 연구영역을 새롭게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일 불교문화 교류와 학술발전에 기여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본불교 연구의 장을 열어준 김호성 교수에게 감사드린다”며 “일본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불교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양국의 상호이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는 일본불교사연구소(소장 김호성)가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연구·학술 중심으로 재출범한 것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원영상 학회장 선출과 함께 감사에 김성순 금강대 HK연구교수와 이필원 동국대 연구교수가 선출됐다. 한일불교문화학회는 9월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및 임원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북한 이탈주민 아픔 함께 할 것”

홍성란 포교사, 불교계 최초 통일교육위원 위촉

“북한이탈주민과 인연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홍성란(사진) 조계종 포교사가 통일부(장관 류길재) 통일교육위원회에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종교계에서는 최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지난 5월 19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새터민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홍성란 포교사가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위촉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성란 포교사는 8년간 새터민들에게 전법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새터민 정착을 위한 1박 2일 가정체험을 전담하면서 우리문화가 담겨있는 사찰의 모습을 알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활동 경험할 수 있도록 사찰과 가정 연결해왔다.

홍성란 포교사는 “불자 가정에서 1박 2일을 체험한 새터민들은 불자들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법당으로 많이 오고 있다”며 “훗날 통일이 됐을 때 먼저 한국에 터전을 잡은 새터민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전파할 것이기에 새터민 포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포교사는 “하지만 타종교에 비해 불교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이탈주민 포교가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새터민들을 아끼고, 팔로 생각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 남한에서의 조기 정착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포교사는 앞으로 해당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을 하게 되면 16개 시·도 지역협의회에 소속돼 통일문화축제, 열린통일 아카데미,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은희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군종교구 현충원 순직군승 참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3일 서울 현충원 순직군승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이하 재경지역 군승 12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우중(雨中)에도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군복무 중 순직한故김수남 법사와 이동신 법사 묘역을 찾았다.故김수남 법사는 해군중령으로 재직 중 지병으로 순직했으며,故이동신 법사는 육군대위로 재직 중 차량전복 사고로 순직했다. **노덕현 기자**

대선불교조계종 세월호 49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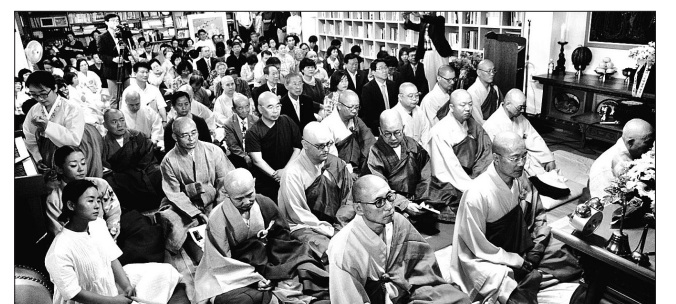


대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승)은 6월 1일 종단 임원 및 총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 천도재’를 봉행했다.

대선불교조계종은 천도재에 앞서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선상 봉안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혜승 스님은 “종도들의 뜻을 모아 고인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한다”며 전국 각 사찰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법현 스님 출판 기념법회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의 수상록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출판기념법회가 5월 31일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과 태고종 원로 원법 스님을 비롯해 채수일 한신대 총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현 스님의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은 불교계, 종교계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일반 신문 등 매체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서 발간한 것으로 출가 수행자의 자서, 수행을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자비계발, 사회적 메시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6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